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8화 마왕 파피야스의 딸 '카마'



마라 파피야스(mara papiyasa)의 명을 받은 그의 세 딸 중 첫째 딸인 욕염(Kama)이 먼저 시타르타의 성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으로부터 어둠을 타고 내려와 삼매(Samadhi)의 경지속에서 열반으로 돌진하고 있는 시타르타의 앞에 그 요염한 자태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막상 크게 동요해야 할 시타르타는 그녀의 출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참선속에 있는 것이다.

시타르타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당하면서 마치 땅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를 쳐다보듯 하자 마녀의 자존심은 비참하게 꺾이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쯤에서 그리 쉽게 물러설 마녀 욕염이 아니었다.

“사카족의 왕자님이시여. 이 좋은 봄날 기분 좋은 날씨에 왕자님은 어찌하여 삶(生)을 포기하려 하시옵니까. 제가 보건데 지금 왕자님의 몸은 비참하게 메마르고 안색 역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지금 왕자님께서 좌선(坐禪)을 해서 불가능한 길을 가겠다고 헤매고 있지만, 그 길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인 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고집을 꺾으세요. 사카의 왕자시여! 지금 왕자님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봄을 맞는 풀들이 한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왕자님도 35세 청춘을 맞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젊은 시절이 즐거운 겁니다. 청춘은 한번가면 두 번 찾아오지 않아요. 당신은 젊고 그 모습도 잘생겨 보입니다. 공연히 쓸데없이 아름다운 청춘을 낭비하지 말아요. 그리고 생명의 고마움도 깨달아야 돼요.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살아 있으면 공덕을 쌓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이처럼 고행을 하지 않아도 순결한 수행에 힘쓰고 성화(聖火)의 제사에 제물을 바치면 공덕을 쌓게 되고 오욕(五慾)의 즐거움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말을 알아 들었으며 그 좌선을 깨뜨리고 내가 하늘에서 준비해온 이 맛있는 술을 들이 보십시오. 이 술은 꿀물 보다도 달고 만다라 천화(天花)보다도 향기가 좋습니다. 이 술 한 잔이면 왕자님께서 즉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일단 몸이 다시 건강해지면 오욕(五慾)의 즐거움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왕자님의 나이 인생의 절정기여서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연의 법리를 아기는 것이 되어 훌륭한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진실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은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지요. 여자를 따르면 마음이 즐겁고 그것을 거부하면 나무에 잎과 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얻기 어려운 경계를 얻으셨으니 결코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라 파피야스의 딸 카마(Kama)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시타르타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였다. 그때까지 마녀의 설득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타르타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마녀에게 답변한다.

“마왕 파피야스의 딸 욕염(慾染)은 들으라, 여인은 욕체를 유혹하고 욕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르는 법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고뇌를 초월해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알지못해 욕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산다. 권세나 이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부드러운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에 대한 미련은 인간이 탈출할 수 없는 원초적인 욕구로서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동안 욕계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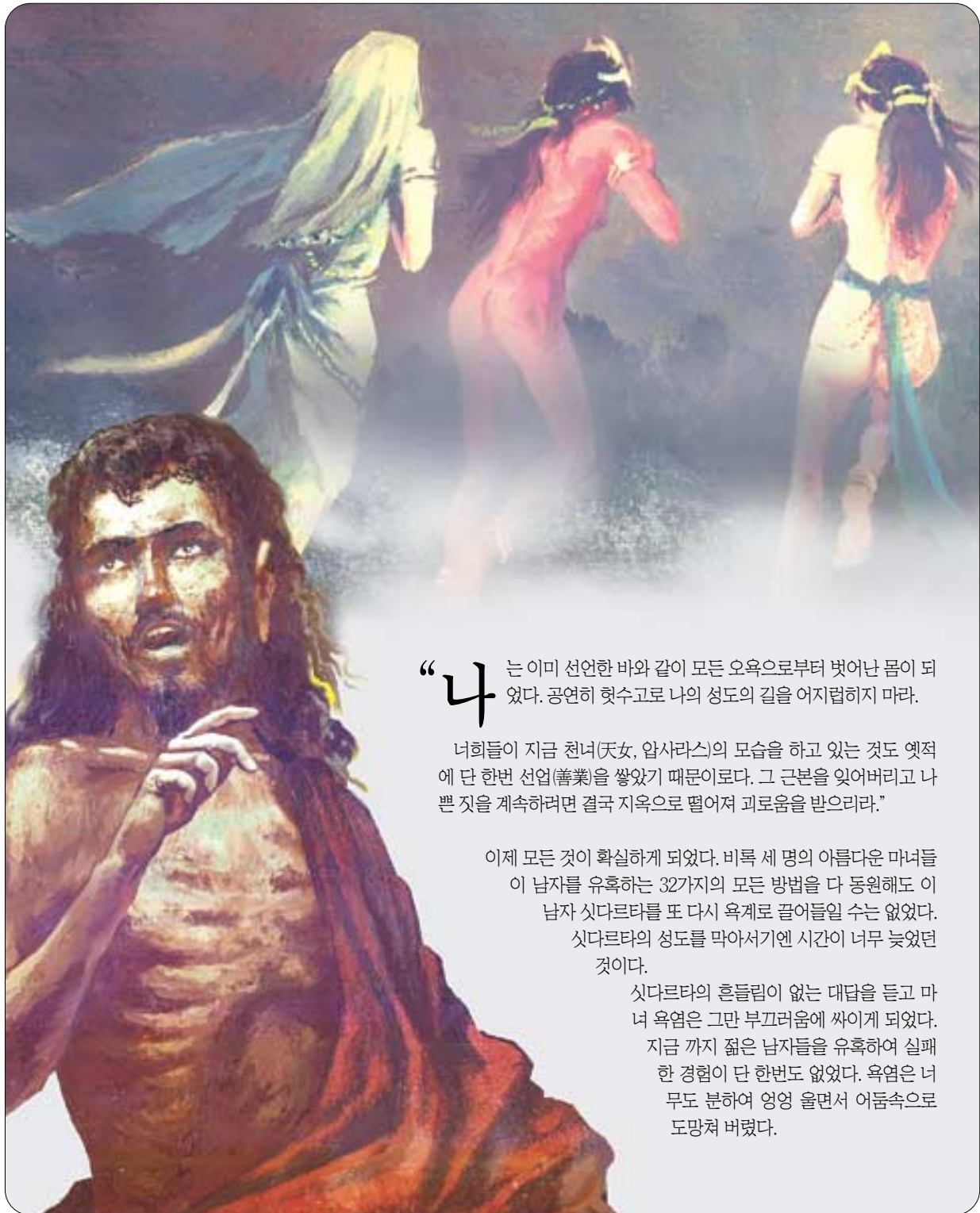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지난 6년간의 수도를 통해서 이제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에 도달하려고 한다. 일단 내 자신이 해탈에 오르면 고통에서 고뇌하는 세상 사람들 까지도 자유롭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늘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교하는 나를 어떻게 다시 욕계로 끌어 내릴 수 있겠는가.”

젊은 청년의 마음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녀들은 뜻밖에 완강한 반응을 보인 사카족의 왕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번의 고행지는 그동안 그들이 정복했었던 어떤 수도승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이 판명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카의 큰 무리가 분명히 밝혔듯이 일단 열반에 오르기만 하면 그 혼자만이 조용히 성도의 희열을 맛보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욕계의 지배하에 허덕이는 세상의 사람들을 일깨워 그들을 욕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선전 포고를 하지 않았던가.

“나는 이미 선연한 바와 같이 모든 오욕으로부터 벗어난 몸이 되었다. 공연히 헛수고로 나의 성도의 길을 어지럽히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천녀(天女, 암사라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옛적에 단 한번 선업(善業)을 쌓았기 때문이로다.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나쁜 짓을 계속하려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비록 세 명의 아름다운 마녀들이 남자를 유혹하는 32가지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남자 시타르타를 또 다시 욕계로 끌어들이 수는 없었다. 시타르타의 성도를 막아서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던 것이다.

시타르타의 흔들림이 없는 대답을 듣고 마녀 욕염은 그만 부끄러움에 싸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젊은 남자들을 유혹하여 실패한 경험이 단 한번도 없었다. 욕염은 너무도 분하여 엉엉 울면서 어둠속으로 도망쳐 버렸다.



세 명의 마녀들은 울면서 아버지 마왕 앞에 섰다. 그리고 호소한다.

“그 왕자의 모습이 비록 말랐으나 보름달 같이 맑은 정기가 얼굴에 서렸고 진흙속에서 솟아오른 아름다운 연꽃자태였어요. 아찔 햇살처럼 밝았고 수미산(須彌山, Sumeru-Parvata)보다 더 의젓하며 타오르는 불길처럼 뿜어나오는 위광(威光)은 기림과 생사(生死)의 속박을 초월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예요. 아버님, 우리의 반항은 아무 소용없어요. 비록 수미산이 무너지고 일월 성신이 땅에 떨어진다 해도 그 사카의 무니는 꿈쩍도 않으실 것입니다.”

기대했던 세 딸의 보고를 받은 마왕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

